

# 日 '다케시마 날' 철회, 광주가 나선다

독도사랑 광주포럼 우산공원서 시민 등 500여명 참석 규탄대회 공연·시 낭독·결의문·만세삼창

단은 22일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우산근린공원 광장에서 '일본 독도의 날 제정 철회 및 만행 규탄대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국회의원들과 범기철 호남의병연구소장, 포럼회원, 시민 등 5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독도 수호' 구호를 외치는 난타 공연, 독도 주제 시(詩) 낭독 등을 시작으로 결의문 낭독, 만세삼창, 거리 캠페인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재천명', '일본 다케시마의 날 조례 즉각 철회', '역사 왜곡 교과서

폐기', '일본 하비야 공원내 독도전시판 폐쇄'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또 '독도는 우리땅' '다케시마의 날 철회하라' '일본은 침략 근성을 즉각 포기하라' 등 구호 삼창을 외치며 일본을 규탄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시민단체 '독도사랑 광주포럼'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만행에 대항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광주 시민 200여 명이 모여 지난해 12월 설립한 모임이다. 민간 차원의 독도 수호사업, 독도영유권 강화 활동, 저소득 이웃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 두달만인 현재 회원은 300여 명에 이른다.

포럼은 일본 시네마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철회 때까지 매년 규탄대회를 열고 독도 탐방, 주민 대상 독도 홍보 캠페인 전개, 독도 역사 고증 활동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상윤(75) (사)독도사랑 광주포럼 이사장은 "전국에 독도 관련 단체 100여 개가 있지만 의향만 전라도에만 없는 현실이 부끄러워 단체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한발 의병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전라도인 만큼 많은 지역민들이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일본의 만행 규탄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장 익어가는 옥상 21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건물 옥상에서 두암2동 '새싹이 마을주민협의체' 회원들이 황칠을 재료로 장을 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올 봄꽃 지난해보다 10여일 빨리 만난다

무등산 산수유 내달말 만개  
벚꽃 개화시기도 일주일 빨라

지난해보다 10여일 더 빠르게 무등산에서 봄꽃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벚꽃도 평년보다 일주일 더 빨리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21일 국립공원별 봄꽃 개화시기, 장소 등 봄철 국립공원 탐방정보를 공개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올해 첫 봄꽃 소식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자리한 여수 금오도에서 들었다. 금오도에서는 지난 1월 12일 꽃봉오리를 터트린 복수초가 발견됐다.

지리산에서는 지난 5일 복수초의 첫 개화가 관측됐다. 이는 지난해 2월 15일보다 10일 빠른 시기다.

국립공원공단은 본격적인 봄꽃 개화시기를 3월 6일(경칩) 이후로 보고 있다.

무등산 약사사-유추계곡 구간에서는 복수초가 이달 말 개화해 3월 중순 만개할 것으로 예측됐다. 잣고개-동문지 구간에서는 3월 중순 산수유가 피기 시작해 3월말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3월 초에는 지리산을 시작으로 산수유와 생강나무가 개화해, 4월에는 전국 국립공원을 노랑게 물들일 전망이다.

3월 중순에는 월출산 무위사 일대에 동백꽃이 피고, 4월 중순에는 유채꽃이 완도

군 청산도 화랑포(영화 서편제 촬영장소) 일원을 뒤덮는다.

기상업체 케이웨더도 21일 벚꽃 개화시기 전망을 내놨다. 올해는 2-3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벚꽃 개화는 평년보다 4~7일 빠른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 개화 시점은 제주도 3월 21일, 부산 3월 24일, 대구 3월 25일, 광주 3월 28일, 대전·전주 3월 31일, 청주·강릉 4월 1일, 서울 4월 3일, 춘천 4월 7일 등이다. 벚꽃은 개화 후 만개까지 약 일주일가량 걸리는 만큼 남부 지방 3월29일~4월7일, 중부 지방 4월 7~14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 자치구중 처음

북구, 생활안전보험 가입

광주시 북구가 광주 자치구 중 처음으로 재난·사고 발생 시 주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

21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2019년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해 지난 18일 새벽 0시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보험보장 대상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이고 전출, 전입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발효 처리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일사방·열사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스포츠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4개 항목에 대한 보상금과 치료비 지원이다. 만 15세 미만 사망은 보장내용에서 제외된다.

보장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모두 최대 1000만원이며, 전국 어디에서든 재해·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타보험과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119에 병력·복용약 등록하세요

소방청 안심콜 서비스 시행

소방청은 "응급상황이 생길 수 있는 환자는 사전에 119안심콜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21일 권고했다.

119안심콜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http://119.go.kr)에 개인정보,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해 두는 시스템이다.

등록 후 비상상황이 생겨 119로 신고가 들어오면 119안심콜에 미리 입력해둔 개인정보가 119 화면에 나타나고 현장 출동 구급대원에게도 전달돼 맞춤형 응급처치가 이뤄진다. 보호자에게는 환자의 응급상황 발생 사실과 병원 이송 정보가 문자메시지로 자동 전송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2 해질 18:21 달뜨기 21:25 달지기 09:01

### 겨울의 끝자락

대체로 흐림 가운데 일교차 크겠다.

광주	흐림	0/11	보성	흐림	-2/10
목포	흐림	1/7	순천	흐림	1/12
여수	흐림	4/10	영광	흐림	-3/7
나주	흐림	-2/10	진도	흐림	1/7
완도	흐림	3/10	전주	구름많음	-1/10
구례	흐림	-4/11	군산	구름많음	-2/8
강진	흐림	0/10	남원	구름많음	-3/9
해남	흐림	-2/8	흑산도	흐림	4/7
장성	흐림	-2/10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1.0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북동	1.0~1.5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1.0~1.5	북~북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동~동	1.0~2.5	북~북동	1.5~2.5

### ◇생활지수

- 높음
- 뇌졸중
- 매우 높음
- 감기
- 나쁨
- 미세먼지

### ◇물때

목표	간조	만조
	09:12	04:00
여수	21:39	16:33
	04:48	11:13
	17:12	23:31

### ◇주간 날씨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28(목)	3/1(금)
☀	☀	☀	☀	☁	☁	☀
-2/16	1/13	1/13	1/13	2/12	3/12	2/11

## 전남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채 의무화

전라남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무직원 채용시 9급 공개경쟁 채용을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을 개정, 다음달 1일자로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정년퇴직, 의원면직 등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행정실) 결원 발생시 내부 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직원은 공개경쟁 채용에 의해 최하위 직급(9급)으로 뽑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사무직원 직무능력과 업

무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간 30시간의 교육훈련 시간을 이수해야 승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무직원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급속승진, 대우사무직원 선발, 명예퇴직 제도도 시행한다.

전남도교육청 김병훈 학교지원과장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제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된 인사관리 지침이 사무직원 인사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전남 불법폐기물 3만2400t·광주 2100t

전남지역에 산재한 불법 폐기물이 3만 2400t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14개 시도 중 4번째로 많은 규모로, 환경부는 오는 2022년까지 모두 치운다는 방침이다.

21일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추진한 전국 불법폐기물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남지역 18곳에서 확인된 불법 폐기

물 3만2400t 중 불법투기가 2만9900t(92.2%, 15곳)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방치 폐기물도 1900t(5.8%)에 달했다. 환경부는 대부분 인적이 드문 임야지역이었다고 설명했다.

광주 지역에서는 2곳에서 2100t(방치 900t, 불법투기 1200t)이 발견됐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제품**

LG ESS 삼성SDI SAMSUNG

**ESS · 설계 · 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사(가중치 5.0 부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산업부 장관 4개 단체장(광주·전남·전북·제주) 에너지산업 활성화 공동약정 체결
- 에너지산업 활성화 공동약정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 지자체, '에너지산업 특별조례' 제정 추진
- 시군에 예산지원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추진 가속화에 공동 노력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광주지사 010-5655-5678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소 | 순천시 중랑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 010-8605-2740